

지역 소식통

부안군, 올해 기준 개별
공시지가 검증 실시

부안군은 2022년도 1월 1일 기준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 적정여부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 검증에 22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진행한다.

부안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의 균형유지와 적정성 확보를 위해 비교표준지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 가격균형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정평가사가 적정한 가격을 제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검증은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17만 6847필지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6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진행한다.

검증에 참여하는 감정평가사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1월 25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격을 검증한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 변산면 지사보협체
난방유 지원사업 시행

부안군 변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조순환)는 지난 18일 2022년 자체 특화사업으로 난방유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화사업은 변산면 주민 및 단체들의 정기타담 또는 일 시 기부금을 공동모금회에 모금하여 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난방유 지원 사업은 변산면 내 독거노인 12명을 대상으로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한 어르신께서는 "기름 넣을 돈이 없어서 이번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걱정했는데 면사무소에서 기름을 넣어주어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였다.

변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순환 민간위원장은 "난방유 지원 사업은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선물한 뜻깊은 사업이었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청년창업인 육성 적극 '지원'

"한번 더 높을고창"

정읍시, 청년발전기금 50억 활용 생태계 조성사업 추진... 청년 문제 해소 나서

정읍시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청년창업의 성공적 사례를 이끌 마중물물 '상생 지원센터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상생 지원센터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조성된 '청년발전기금(5개년 총 50억원)'을 재원으로 청년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산업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지난해 9월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와 협약을 맺고 상생 지원센터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구축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정읍시 창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며 창업지원 현황과 인프라, 기획사업 등 정보를 공유한다.

또 지역의 창업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과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기관 간 창업기업 연계 육성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2월 28일부터 3월 18일까지 '상생 지원센터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사업'에 참여할 예비 청년 창업자와 청년 기업을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안전성평가연구소의 기술 이전을 받은 기업 또는 기술 이전을 받을 예정인 청년 기업과 1년 안에

창업이 가능한 예비 청년 창업자다.

대표는 만 39세 미만(1982년 이후 출생)이어야 하며,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청년 기업의 대표자 또는 대표 예정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정읍시이어야 한다.

당 국세·지방세 체납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와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 업종 영위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추진을 위해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는 상생 지원센터의 공간 제공과 60여 개의 보유 기술 이전, 공동 연구와 전문가 자문, 인력 개발 등을 지원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유기상 고창군수, 26일 저자사인회 개최

유기상 고창군수는 오는 2월 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고창 하나로 마트 2층에서 자신의 일곱 번째 저서 '유기상과 함께 한번 더 높을고창'을 출간하고, 저자 사인회를 개최한다.

유기상 군수의 저서 '한번 더 높을고창'은 민선 7기 선거 당시 역사상 최고의 대동령 집권당 민주당의 지지율 환경 속에서도 수준 높은 고창군민의 준엄한 선거혁명으로 취임한 이후 3년 7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한 번도 첫수도 고창'을 다시 한번 재현하기 위해 군민들과 울려했던 현장행정과 앞으로 우리 고창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구상을 기록하고 있다.

출간된 '한번 더 높을고창'은 머리글에 군민과의 공약을 이행한 '발한대로 이루어지는 고창군정', '하늘이 도와주는 고창군정' 등을 담았다. 1장 '고창을 확 바꿨습니다. 바꿔야 바뀐다'는 약속을 지킵니다', 2장 '고창을 빛낸 33인의 군민 목소리를 찾아서, 군민이 군수다', 3장 '보도자료와 화보로 보는 군민 속으로 달려간 4년의 발자취', 4장 '새로운 고민 새로운 구상' 이렇게 네 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유기상 군수의 저자 사인회는 그동안 정찬들이 세 과시와 인맥을 강조하기 위해 유명 인사들과 주민들을 최대한 많이 동원하거나, 축하 화환을 게시 등의 민연한 출판기념회를 탈피하고, 한 공간에서 오래 머물지 않아도 되는 작품 전시회 형식의 '워킹스투'(Walking-Thu)로 진행될 예정이다.

유기상 군수는 "코로나 19 방역에 유의하면서 행사방식을 구상했습니다.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구가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 변화를 요구하는 수요자인 유권자의 바람에 정지인



은 순응해야 합니다. 기존의 보여주기식 행사와는 달리 별도의 축하행사를 과감히 없애버리고, 대신 갤러리 형식으로 저서와 관련된 사진 전시, 영상 상영, 저자 사인회, 기념촬영 등 저자와의 만남이라는 출판기념회 본연의 모습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저자 사인회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 동안 열어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참석자들의 분산을 유도할 계획입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유기상 고창군수는 민선 7기(제47대) 군수로 문학박사, 전북문화재연구원 고문, 전북대 초빙교수, 전라북도 체육회 이사, 전북개발공사 이사, 원광대·전주대 겸임교수,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이사, 전라북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등재추진단 이사, 익산의제 21 공동대표, 새만금 방조제개통문화행사 깃발축제 집행위원, 전북도청도서관 관장, 전주 영상위원회 부위원장 겸 조직위원,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 전국 책읽는 도시협의회 감사를 역임하였다. /고창=김영식 기자

체험프로그램으로 자연·생태 중요성 알린다

고창운곡습지, 전 세계가 '주목'

지난 18일 고창군 운곡저수지 한편, 고고한 재태가 유독 눈에 띈다. 우아한 곡선의 긴 목과 큰 날개, 흔히 백조로 알려진 겨울잔객 큰고니(멸종위기야생생물 2급)다. 물 위를 순백색의 길고 가는 목을 추켜세우고 물살을 유유자적 가르며 고니의 고귀한 모습은 언제 보아도 기쁨이 넘친다.



지난 18일 고창군 운곡저수지 한편, 고고한 재태가 유독 눈에 띈다. 우아한 곡선의 긴 목과 큰 날개, 흔히 백조로 알려진, 겨울잔객 큰고니(멸종위기야생생물 2급)다. 물

운곡습지는 겨울철새를 비롯해 800여종의 희귀 동·식물이 살아있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다. 이런 가치에 주목해 한국관광공사의 비대면 힐링여행이 단골로 선정되고, 국제적으로도 '세계100대 관광지', '최우수 관광마을'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 고창군은 운곡마을 주민들과 함께 습지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시키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여름밤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는 '운곡습지 자연의소리(풀벌레 악기연주)'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만들기 축제체험 등), '운곡습지 자연의소리(풀벌레 악기연주)'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유진섭 시장 간부회의 주제, '오미크론 변이 확산 총력 대응' 당부

유진섭 시장이 21일 영상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관련 의료체계가 공공부문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대응을 강조했다.

유 시장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아직 어디까지가 잠잠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 수칙 준수 지도점검 방안 마련과 변이 확산 대응

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재택 치료 중심의 새로운 방역체계가 현장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달라"며 "의료체계가 대응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선제적·전력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마스크 착용과 불필요한 이동, 만남 자제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시민들이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적극

적인 홍보를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제271회 임시회와 관련해서도 회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연찬과 자료준비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봄철 해빙기를 맞아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재난으로 이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작은도서관 5개소, '방과 후 마을학교' 선정

정읍시가 운영하는 14개의 작은 도서관 중 상동·수목동·용달샘·수성·꿈꾸는 작은 도서관이 정읍교육지원청 주관 2022년 방과 후 마을 학교 공모에 선정됐다.

공모에 선정된 5개 작은 도서관은 지역 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총 18개 과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부모가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아동들에게는 안전한 쉼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 도서관은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문의는 정읍시 도서관사업소(☎539-644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정읍시 작은 도서관은 방과 후 마을 학교 사업과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 등 200개의 자체 프로그램을 연계해 운영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한 지라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 관할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합당한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 예방활동가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특징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어른이 올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겁에 질린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